

理事長 小松昭夫 様

韓国の一部言論報道によりますと、島根県に記録的な豪雨があったそうですが、理事長におかれましてはご無事でしょうか？

様々な厳しい状況の中でも、このたび大邱地方弁護士会・島根県平和使節団の訪日を快く受け入れて頂き、物心両面から支援をいただき真に感謝いたします。

初日から最終日までの間の心のこもったご歓待を、私たち訪問団は決して忘れないと思います。

今回の島根県訪問によって『出雲の縁結び神話』よみがえり、戦争のない世界に向けた平和インフラが構築できることを願います。

理事長もよくご存知のように、島根県は韓国と、独島の葛藤による韓・日関係悪化の最高責任地域であります。私たち使節団の訪問目的はこのような状況が、過去侵略戦争の象徴である旭日旗がまた揚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心配をしていましたが、島根県議会が侵略戦争の象徴的被害者である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し、安倍政権に問題解決を促す意見書を可決したことを契機に、戦争の太陽ではなく、貴研究所の発表にありますように、平和の『出雲から陽が昇る』となり、被害者のハン（恨）が癒される最高の地域になれることを伝える目的でありました。

現在、韓・日間の平和を構築するためには、たくさんの課題が残っているのが事実ですが、小松理事長のような平和を愛し、実践する良識ある方がいる限り、平和は必ず定着すると確信します。最近の韓・日関係悪化は、小松理事長がおっしゃるとおり、朝を迎える前が一番暗いという状況と一緒に思います。このような暗闇を貫いて、平和の朝を迎えるための小松理事長の今回のシンポジウム開催に向けた努力は、歴史に残るものと確信します。

私たちは審勢得人の知恵を持って、韓国で平和を愛する人を得ていきます。小松理事長は日本で平和を愛する人をたくさん得てください。最後になりますが、われわれ平和使節団の訪日中、たくさんの素晴らしい方に会わせ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奥様をはじめ、いろんな方々にも感謝の言葉をお伝え願います。なお、次回の韓国訪問の際には、訪問団との再開の機会があ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13.8.26.

崔鳳泰

고마츠 아키오 회장님 귀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마네현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는데 별고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하에서도 이번 시마네현 평화방문단의 방문을 흔쾌히 받아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 시작에서부터 끝이 날 때까지 마음을 다한 환대는 우리 방문단 일행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마네현의 이번 방문으로 ‘이즈모 인연 맺음’의 신화가 다시 살아나 전쟁이 없는 세상을 향한 평화인프라가 구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방문단의 방문 목적은 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마네현은 한국과는 독도갈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 악화의 최고 책임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즈모에서 태양이 떠 오른다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의 상징인 옥일승천기가 다시 떠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한국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시마네현 의회가 침략전쟁의 상징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정권을 비판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전쟁의 태양이 아닌 평화의 태양이 떠 올라 피해자들의 한을 치유하는 최고의 평화로운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일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마츠 회장님과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양식있는 시민들이 있는 한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는 고마츠 회장님의 말씀처럼 새벽이 오기 전 어두움이 깊어져 가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런 어둠을 뚫고 평화의 새벽이 오는데 고마츠 회장님의 이번 노력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심세득인의 지혜로 우리는 한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어 나가겠습니다. 고마츠 회장님은 일본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평화방문단의 방문중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울러 다음 방한 때 우리 이번 방문단과 즐거운 재회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8.26.

최 봉태 드림